

이소영의 '우리지역 우리식물'



'장형두, 광주 누문동에서 서울 망우동까지'

푸른 하늘 아래 드넓게 펼쳐진 역사 풍경을 좋아하는 다. 우리나라에서는 물억새, 자주억새, 얼룩억새 등을 흔히 볼 수 있다.

내가 장형두 선생의 업적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2년 전 우리나라 식물 용어를 우리말로 순화하는 연구사업의 삽화를 맡아 그림 때였다.

장형두 선생은 1906년 전라도 광주 지금의 누문동에서 태어났다. 그는 12살이 되던 해 일본으로 건너가 도쿄대학교를 거쳐 일본 식물학의 아버지라 칭해지는 마키노 도미타로에게 사사 받는다.

식물도보'를 썼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44세의 나이로 운명을 달리한다. 1949년 10월 좌익 누명을 쓰고 경찰에 끌려간 후 고문받다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젠가 야생화 사진을 찍으러 다니는 분들로부터 장형두 선생의 묘지가 옛 망우공동묘지인 망우역사문화공원에 안장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서울 망우동이라던 내 집에서 차로 10분이면 갈 수 있는데 지난주가 되어서야 망우역사문화공원에 다녀왔다.

의료칼럼

이갈이 치료와 '스플린트'



김지후 조선대학교병원 구강내과 전임의

다. 교합 안정 장치는 일시적으로 턱관절이 정형적으로 가장 안정된 위치에 놓이도록 한다. 최적의 교합 조건을 만들어 주어 정상적 근육의 기능은 강화시키면서 비정상적 근육의 활성을 감소시킨다.

교합 안정 장치는 상악이나 하악의 모든 치아를 덮어야 하고, 잇몸과 잘 적합되도록 하며, 딱딱한 레진(경성레진)으로 제작한다. 그러므로 비전문적 매체를 통한 자가 제작보다 치과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교합 안정 장치는 상악이나 하악의 모든 치아를 덮어야 하고, 잇몸과 잘 적합되도록 하며, 딱딱한 레진(경성레진)으로 제작한다. 그러므로 비전문적 매체를 통한 자가 제작보다 치과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기고

민선 8기 광주복지연구원의 역할



김만수 광주복지연구원장

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 하는 사회 구현'을 110대 국정 과제에 포함시켰다. 광주 민선 8기는 환경 변화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을 넘어 적극적으로 복지 환경을 주도해 나가는 '광주다움 복지'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보편적 복지와 맞춤형 복지로 가는 과정은 필연적으로 예산 증가를 수반한다. 최근 10년간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보건복지 예산 연평균 증가율이 10.8%를 기록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로 두 분 모두 우리나라에 푸르른 숲을 남겨 준 것은 사실이지만 장형두 선생이 식물학계에 남긴 업적이 두 분에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장형두 선생의 스승인 식물학자 마키노 도미타로의 일대기가 내년에 일본 공중파 드라마로 방영된다는 뉴스를 보았다. 식물학자의 일대기를 영상으로 볼 수 있구나 반가웠지만 한편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 서글펐다.

그러나 노란 애기뽕풀과 달맞이꽃 그리고 꿩다리 와 매발톱을 만나고 이들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한 번쯤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 식물들이 고운 우리말 이름으로 불리게 된 역사 뒤에는 장형두라는 식물학자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말이다.

社說

쇠락 일로 전남 농어업 경쟁력 향상 서둘러야

최근 10년 새 전남 지역 농어업 인구가 10만 명 이상 줄고 고령화도 급속히 진행 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6차 산업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농어업이 생산에만 치우쳐 부가가치가 낮고 경쟁력은 하락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전남도내 농업 인구는 지난 2011년 37만 9767명에서 2020년에는 28만 60명으로 9만 9707명 감소했다. 같은 시기 농업 인구는 5만 4975명에서 3만 5534명으로 1만 9441명이 줄었다. 농어업 인구를 합치면 12만 명 가까이 급감한 것이다.

지역 대학 중심 반도체 인재 양성 절실하다

광주시와 전남도, 더불어민주당, 지역 대학들이 반도체 인재 양성에 손을 맞잡았다. 이른바 '당·정·학'이 연합해 지역 대학에 반도체 학과를 신설해 인재를 키우겠다는 것이다.

이들 기관들은 지난 5일 전남대에서 간담회를 열고 구체적인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 등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김기정 광주시장과 황기연 전남도 기획조정실장, 민영돈 광주전남대학총장협의회장 등 15개 지역 대학 총장단은 물론 제1 야당인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까지 참석해 광주·전남 대학에 반도체 학과를 신설하는 방안이 힘을 보탤다.

강 시장은 특히 "민선 8기 광주·전남 상생 1호 정책이 300만 명의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하는 것으로, 핵심은 인재 양성에 있다"고 강조했다. 노무현 정부 때 시작된 지역 균형 발전이 문재인 정부를 거쳐 윤석열 정부에서 교육과 산업을 통한 균형 발전

채가 덩달아 늘어 소득 상승 효과는 체감하기 힘들다. 전남의 어업 생산량은 2011년 전국의 40%에서 2021년에는 57%로 크게 늘었지만 수출액은 6.1%에서 12.0%로 상승하는데 그쳤다.

전남은 국내 최대의 농수산 생산 기지이자 식량 안보의 보루이다. 한데 인구 감소 등으로 생산 기반이 차츰 무너지고 농어촌 곳곳에 빈집이 양산되면서 공동화마저 심화되고 있다.

농어업의 쇠락은 농어촌 경제의 붕괴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결국 일반 국민에게까지 미치게 된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는 농어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도시민의 귀농·귀어를 적극 유인하며, 농어촌을 활성화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의 지적처럼 현 정부는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별법(반도체특별법)을 시행해 반도체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광주·전남은 물론 대구와 부산 등 주요 지방정부들이 반도체 학과 신설을 통한 인재 양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

현 정부의 첨단산업 육성의 핵심은 반도체 인재 양성에 맞춰져 있다. 그런 만큼 당·정·학이 손을 맞잡고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환영할 일이다. 다만 정부가 추진하는 것처럼 수도권이 아닌 지역 대학이 중심이 되어 반도체 인재 양성에 나서는 것이 타당하다. 위기의 지방 대학을 살리고 균형 발전을 실현해 내는 것은 인재 양성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無等鼓

세계 최초로 제목에 좀비(zombi)가 들어간 영화는 1932년 빅터 휴고 할페린 감독의 '화이트 좀비'다. 부두교를 믿는 나라 아이티로 신혼여행을 간 아름다운 여성을 탐하려는 섬의 농장주가 주술사를 동원하는데, 여기서 좀비가 등장한다. 좀비는 주술사가 만든 약물을 마시고 이성과 지성을 상실, 주술사의 명령에만 복종하는 존재다.

‘좀비 정치’

좀비를 조연으로 하는 콘텐츠들이 증가하는 것을 반기고 싶은 생각은 없다. 마치 현실에서 사람들이 무엇인가에 지나치게 맹목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을 풍자하고 있는 듯하기 때문이다.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 갈등 뒤에 숨어 상대방을 그저 욕설 비방하는 것으로 사익을 추구하거나 이해관계가 첨예해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젠더·세대 갈등을 파고 들어 권력 기반을 다지려는 것이 좀비의 행태와 다를 것이 무엇인가.

과 지방 소멸, 저출산과 고령 인구 급증, 고불가·고금리에 따른 서민 고통 가중 등 해결해야 할 현안이 쌓여 있는데도 언제부터인가 정치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여야 정치인 가운데 상당수가 계파 수장에게 줄을 서고, 오로지 그들을 추종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다. 말조리 잡기, 쓸데 없는 다툼, 알박한 처세 등으로 가시거리만 남발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말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어느 언론사가 실시한 '정치인 능력 및 자질 평가' 조사에서 응답자의 87.6%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반면 '훌륭하다'는 답변은 10%에도 못 미쳤다. 정치인들이 현안에 대한 진지하고 면밀한 연구와 검토, 대다수 국민의 공감대를 이끌어낼 해결 방안 마련, 이를 실천하기 위한 추진력 등의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의미다. 입문 과정 자체가 불투명하고, 정치인들의 능력 검증 또한 거의 없는 우리의 정치 현실이 계파에만 충실한 '좀비 정치'를 양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다.

광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정 치 부 220-0652
경 제 부 220-0663
사 회 부 220-0642
전 남 본 부 220-0680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